

## 인도자용 소그룹 교재 1

**제목**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본문** 사무엘상 11:6-13

**찬송가** 331 내 너를 위하여,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30 어둔 밤 쉬 되리니

**여는 질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낀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이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처럼 들으시는 초신자들이 많다면, 질문을 바꾸셔도 됩니다. 예)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느끼는 경험을 나누게 하셔도 됩니다.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허락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됨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본문 이해**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야베스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찾아가 화친조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때에 나하스가 치욕적인 조건을 제시하지요. 나하스는 화친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령하려 했던 것이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을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매, 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입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에게 쳐서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끍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울의 자격을 불신했었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사람들이 사울을 불신했던 이들을 끌어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 요청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3 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이가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가운데서 내뱉은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뱉은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요. 이런 사울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 반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속으로** 1. 삼상 12:13 절, 사울의 자격을 의심했던 이들을 죽이자고 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했을까요?

(자유로운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할수 있고, 이 기회에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처리하고자 했을 수도 있지요. 한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한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2. 삼상 12:13 절, 사울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울.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하신 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삶 속으로** 1. 사울과 같은 고백을 사람들 속에서 했거나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 날은 주의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요. 그런데, 때로 이것이

잊혀지도 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주일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교시에, 주차장에서 서로의 말과 행동이 거침없이 나올때가 있지요. )

2. 1 번의 예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때 핀잔을 받았던 경우가 있으셨을텐데, 왜 일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이후에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짓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이치에 맞추어 살면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나누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수 있는지도 논의해 보세요.)

**암송 구절** 시편 60: 11-12,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녀와의 나눔** 언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느끼니?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찾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신들을 사랑함을 알기에 찾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을 보면 와락 안겨 올지요.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지켜줄 부모님임을 알기에 안겨서 우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설명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이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임을 나눠보세요.)

## **소그룹 교재 2**

**제목**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본문** 사무엘상 12:6-18

**찬송가** 52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27 어서 돌아오오

**여는 질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10:19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말을 통해 경험하게 된 좋은 일, 나쁜 일, 가슴아픈 일 등을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 했지만 상처를 주었던 일, 나쁜 의도로 말했지만 위로를 주었던 일도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본문 이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삶, 선지자로써의 역할을 정리하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두고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는지, 남을 속인적이 있는지, 뇌물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놓고는 질의응답시간을 갖더니, 이 후에 말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짚으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바알을 섬겼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백성들이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개인적인 내용이었는데, 후반부에는 백성 전체, 인간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악을 행하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권고하며 물러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법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삶의 마지막에 가장 많은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닳고 싶은 삶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음식으로 친교를 나누며, 속회의 시간에, 또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나의 말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모든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불필요한 것을 제하고 나면, 사무엘처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마지막에 가족과 이웃에게 삶의 권고를 남긴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아니면 흘려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속으로** 1. 삼상 12:1-3 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청렴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 장의 마지막까지를 묵상해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목소리 톤은 온유하고 조용하며 겸손했을 겁니다. 자신이 모르게 형제들에게 행한 악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었지만, 결국 백성들도 형제처럼 사랑하고 아꼈기에

형제들의 죄도 사함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금 알려 준 것이라 여겨집니다.)

2. “왕의 제도” 를 구한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19 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 율법은 죄를 죄로 온전히 여기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롬 3:20;5:13).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갈 3:19) 입니다. 왕의 제도를 구한 백성들의 고백은 갈 3:19 절과 같은 고백입니다. 죄를 짓다가 결국 더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왕의 제도도 율법 가운데 하나임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을 앞에 두고는 이렇다 저렇다 논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왕의제도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 된 것을 더하는 것임을 알고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삶 속으로** 1. 사무엘 선지자 처럼,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해 본적이 있나요? 혹, 지금껏 나눈 나의 이야기는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깃거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회자 이외에는 기도제목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속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절실하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은 나누어 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2. 왕정, 공화정, 민주정, 모든 것이 “왕의 제도” 에 포함되는데, 삼상 12:14-15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인간들에 의해서 잘 정리된 세상의 논리로 교회도 살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표현할 때, 이땅에서 유일하게 대표하는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생활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교회라고 설명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설명으로 끝날때가 허다합니다. 요즘 현대에 누가 교회를 천국의 표본이라, 천국을 맛볼수 있는 곳으로 여기겠습니까? 이는 세상의 가치들이-짓된 가치들이 교회내에 들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일례로, 교회의 회의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서로의 부족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기 바쁜 모습도 자주 봅니다. “왕의 제도”, 세상의 이치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때 또 다른 죄를 불러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암송 구절** 시편 119: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녀와의 나눔**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심감? 성적표? 말빨? 멋진 외모? ... 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7-29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소그룹 교재 3

**제목**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본문** 사무엘상 13:8-15a

**찬송가**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8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90 오 신실하신 주

**여는 질문**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혹시 갑자기 변한 경험을 해 보셨거나, 변하는 사람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부흥회를 다녀오면 사람들이 조금은 변한듯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예전으로 돌아오지요. 이유인 즉,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부흥회 기간에 감정이 놀랐고 이에 조금 새로운 것들을 해본 것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자 부흥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지요. 성경에선, 사람이 변하는 것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고자 한다면 옛 것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는 새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지요.)

**본문 이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위하여 길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전쟁에 출정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이에, 사울왕도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과 선지자도 없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더는 지체할수 없다고 여겼겠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왕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묻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사울은 변명을 내어놓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사울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자리를 뜨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다시금 상기해주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속으로** 1.사울 왕이 왜 번제와 화복제를 드렸을까요? 너무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레위기 10:1-2, 제사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예입니다. 또 번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지요. 제사장은 자신도 먼저 죄를 속죄한 뒤에 백성들의 번제를 들였습니다. 사울왕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것이지요. 왜그랬을까요?)

2. 레위기 10:1-2 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가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사울왕은 왜 심판을 받아 죽지 않았을까요?

(1)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란 사무엘의 예언을 보면 심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은 불을 맞아 죽고 살고에 있지 않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되는데 이는 이땅에서의 숨을 쉬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까요. 3)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시편 51:17, 요엘 2:12-14, 상한 심령,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삶 속으로** 1.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잘못을 범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예) 아이들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라 하면서, 성인들이 자주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2. 어쩔수 없다는 핑계로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경우는 없으신가요? 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라는 말씀은 알지만, 도움을 청하는 이웃을 만나면 저 사람이 괜히 그러는지 의심하거나, 또 찾아올 것을 걱정하는 경우. 충분한 기도 없이 급하게 일처리를 한 경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나누어 보세요)

**암송 구절** 잠 1:33,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녀와의 나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본적이 있나요?

특히 성경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때는 어떤 경우였나요?

#### 소그룹 교재 4

**제목**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잠 14:3)

**본문** 사무엘상 15:4-9 (17-23)

**찬송가** 449 예수 따라가며, 452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여는 질문** 말을 하다가 실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특히 교회에서, 고통가운데 있는 교우를 위로하려다가 상대방을 나쁜점을 지적한 경우. 농담을 한다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한 경우.

**본문 이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삼상 13장의 심판의 내용 뒤에 하나님께서 한번 더 명령을 내리신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지요. 출 17:14-16 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울왕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이에 사울왕이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것들 중 좋아 보이는 것들과 기름져 보이는 동물들을 살려둡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11 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로 눈물을 흘리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짚었지요.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묻지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됩이니까?(14 절)”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15 절).” 사울의 대답을 듣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23 절)”고 전하자, 사울이 대답하지요, “백성이 두려웠다(24 절).”

사울의 대답을 보면, 이했다 저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일관되었지요. 9 절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보기 좋은 것들을 남겼고, 보기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탐심과 정욕이 있었지요. 삼상 13장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물음에 나름의 변명을 제시했지만, 그의 대답도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뱉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보기 좋은 것만 남겼고, 백성들을 신경썼다는 것’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끝까지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정말 끝이 납니다.

분명 자신의 욕심을 알았을텐데, 자신의 변명이 눈 속임인지 알았을텐데, 이를 고수하다가 심판을 피할 기회도 놓치고는 자멸합니다.

**말씀속으로** 1. 사울은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멸시키지 못했을까요?

(참고, 사 57:17, 벰후 2:3)

2. 삼상 15:30, 사울의 고백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고백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나요?

(사울은 끝까지 입술로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상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높임을 받고 싶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을 잊었기에, 사무엘에게도 거짓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삶 속으로** 1. 하나님의 때가 아닌 순간에 입술을 벌려서 나 스스로의 악함만 드러낸 경우는 없으신가요?

(마 15: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세상은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교육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할 말은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선포합니다(눅 21:15).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입술을 열면, 자기 정당화, 합리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일의 해결은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말지요. )

2. 침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는 없으신가요?

**압송 구절** 누가복음 2:35,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녀와의 나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나의 의도를 들킨적이 있나요?

(가장 흔한 예로,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지요. 평소와는 다른 말투와 행동으로 들킵니다. 또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지만, 대화를 하다가 괜히 엉뚱한 말로 의도가 드러난 경우도 있지요.)